

<나의 삶 나의 하나님> **내사랑 막내딸**

4년 전, 막내딸이 태어났을 때, 우리 부부는 얼마나 놀라고 두려워했으며 절망 속에서 허덕였는지요. 아기의 왼편 손에는 가운데 세 손가락이 없는 것이었습니다. 엄지와 새끼손가락만이 그것도 마디가 하나 정도나 될까 싶게 작고 가늘게 붙어있는 손가락이었습니다. '단지증(短指症)'의 일종이라는 것이었습니다. 저의 부부는 그 때 처음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체험했습니다. 둘이서 부등켜안고 함께 울고, 각기 홀로 있을 때 또 쓰라린 눈물을 흘리기를 얼마동안이나 계속 했습니다.

더욱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것은 교회 생활을 하지도 않을 때 낳은 두 아이는 저렇게 건강하고 정상적인 아이들인데, 막내는 임신 사실을 알고 부터 우리 부부는 물론이고 온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출산을 한 것입니다. 그리고 우리 가정 네 식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"이 아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아기가 되도록 해 주옵소서" 뜨겁게 기도한 아기입니다. 아기의 이름도 예지(예수님의 지혜)라고 지어 놓고 기다린 아기였습니다.

우리는 울면서 '그래도 우리가 무엇을 잘못 했길래...'라는 생각에 묶여 있었습니다. 그러나 곧 그 생각을 바꾸었습니다. 주님은 우리가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들추시어 응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.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시선을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두고 계실 것입니다.

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, 우리의 막내 예지에게 이런 손을 주셨다고 믿습니다. 그래서, 저희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 할 예지의 미래와 우리 가정의 미래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. " 주님께서 집사님 내외분의 믿음을 보시고, 이런 아기를 맡아서 키우기에 합당하다고 여기셔서 그 가정에 보내셨을 겁니다" 어떤 교우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로 다가왔습니다.

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열렸습니다. "하나님, 예지가 크면서 아이들에게 혹 놀림을 당할 때라도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예지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의 연고(軟膏)약을 미리 발라주십시오. 그리고 예지가 말을 알아들을 때부터 말씀으로 무장을 하도록 불들어 주소서"

예지가 벌써 다섯 살이 되었습니다. 왼손을 잘 쓰려고 하지 않고 신발 끈을 매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찢어지는 듯 합니다.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렵고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길까.... 하지만 인생이란 어차피 힘들고 곤고한 것 아닙니까. 예지는 조금 더 힘들겠지요. 예지가 이 손을 하여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신 축복에 더 확실하게 참여하고 천국을 침노하여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더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?

저희는 예지의 왼손을 "하나님이 주신 예쁜 손이라"고 부릅니다. 그리고 주위의 아이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물을 때면 "정상" "비정상" 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 "다른 손"이라고 설명해 줍니다.

(광고면에서 계속 ☞.....)

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	'2001년 교회생활: "OT하는 갈보리교회"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	교회생활지침 누가 10:37 *자원함 - 섬김과 봉사 *익명성 - 명예
제 3권 34호	기초성경공부이수. 정장으로 예배. 남 이야기 금지	2001년 9월 9일
☎520-9464/021-292-1639. ☒10 Burleigh St(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)		

단 한 가지 기술

왼쪽 팔을 심하게 다쳐 절단한 열 살 된 소년이 있었습니다. 그는 유도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. 그의 스승은 나이 많은 중국인 유도 고수였습니다.

소년은 빨리 배웠습니다. 석달동안에 그는 단 한 가지 기술을 배웠습니다. 스승에게 다른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했지만, 스승은 그 한 가지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.

얼마후 그 소년은 대회에 참가해서 손쉽게 결승에 진출했습니다. 상대는 덩치도 크고 경험도 많은 선수였습니다. 소년이 무척 불리해 보였습니다. 장시간의 경기 끝에 상대 선수가 빈틈을 보였습니다. 그틈에, 그 소년은 유리해 보였던 상대를 재빨리 제압했습니다.

돌아오는 길에 소년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.

"어떻게 단 한 가지 기술로 이길 수 있었죠?"

스승이 대답했습니다.

"너는 유도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 중의 하나를 거의 마스터했다. 상대방이 그 기술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 왼팔을 잡는 거란다."

하나님은 우리의 결점을 이용해 가장 큰 능력을 나타 내시는 분이십니다.

"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(로마서 8:28)"

주 일 예 배

(성 찬 주 일)

영 광 송 Gloria	"Calvary" 1.3절:다같이	다 같이
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		
용서의 선언 Proclaim	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	인 도 자
*찬 송 Hymn	14장	다 같이
*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	27(시편 121편)	
교 회 소 식 Welcome & Announcements		
찬 송 Hymn	455장	다 같이
기 도 Prayer		김교섭 장로
성 찬 식 Holy Communion		집례자
신앙고백 Apostle's Creed	사도신경	
분 별 분 잔 기 도	김교섭. 김종건. 정희자. 지찬영	다 같이
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	이사야 38:1-8(구 1010)	인 도 자
부부성가대 Couple's Choir		부부성가대
설 교 Sermon	어려운일 당할 때	김성국 목사
찬 송 Hymn	'나의 등 뒤에서' (마지막절은일어서서)	다 같이
*헌 금 기도 Offeratory Prayer		인 도 자
*응 답 송 Response Song	'좋은신 하나님'	다 같이
*위탁의 말씀 Encouragement		인 도 자
*축 도 Benediction		김성국 목사

'2001년 교회표어 "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으로" <실천 1년 성경완독 사항> 매일 QT(Quiet Time) 생활화	<등록규정> *3주간 예배,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*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.
--	--

주일예배 12:00 수요일예배 7:30 pm 금요새벽기도: 6:00 학생, 청년부: 토요일 4:00

교 회 소 식

- 성경완독 1년
*그 동안 완독하신 성경완독표는 봉헌함에 넣어주십시오.
-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.
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을 성찬을 통해 다시한번
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.
*성찬 참여자: 세례교인
- 식사친교: 오늘 예배 후 식사를 나누며 친교합니다(Hall)
- 금요연합모임: 인치혁, 김정미 집사 가정. 14일(금) 저녁 7시.
- 기도모임: "믿음의 어머니" 기도모임.
*매월 첫주 화요일에 '믿음의 어머니' 기도회로 갖습니다.
*13일(화). 저녁 7:30. 교회(9월달은 매주 특별기도회로 갖습니다)
- 9월 교회력

	교회력	모임 및 행사
2일	제직회	인도자모임(4일). 구역예배(7일)
9일	성찬식	식사교제.
16일		
23일		교사기도회(31일)
30일	이삭줍기 봉헌	

(나의 하나님 나의 삶에서 계속)
정상인(?) 들이 장애인들을 장애인이라고 부르지만, 이것은 정
상인(?) 들의 시각에서 나온 말일 뿐, 장애인들 편에서 "비장
애인"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.

제가 아파서 몸부림 칠 때에 함께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
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고서는 슬퍼하던 것을
멈출 수가 있었습니다.

김천시 이철, 현 숙열